“말보다 현장… 국비도, 정책도 군민 삶 연결”

민선 8기 3년

김철우 보성군수

전라남도 보성군이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3대 SOC’, ‘3가지 보성형 모델’, ‘365일 체감 군정’이라는 ‘3·3·3 전략’을 중심으로 군정 성과를 내세웠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민선 8기 3년은 군민과 함께 쉼 없이 달려온 시간으로 군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정책,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을 통해 변화의 속도와 방향을 만들어왔다”고 1일 밝혔다.

군은 남은 1년 교통, 생활 등 핵심 SOC를 확충하고 대형 국책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지역 성장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3대 SOC 중 먼저 보성군은 철도 기반 교통 혁신으로 경전선(광주~순천), 남해선(보성~목포) 전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성읍과 벌교읍에 정차하는 KTX-이음 개통 시 서울까지 약 2시간30분, 부산까지는 2시간 내 도달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도시 기반 생활 SOC 확충을 위해서는 수영장, 볼링장, 영화관, 키즈카페 등이 들어서는 ‘보성군복합커뮤니티센터’가 올해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벌교문화복합센터’도 순조롭게 건립 중이다.

3대 SOC 성장 인프라 구축
완성형·미래형·현장형 군정

산업 기반 SOC는 ‘제2조성농공단지’ 신규 조성, ‘조성·미력농공단지’ 패키지 지원, ‘벌교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 및 청년 일자리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3가지 보성형 모델 중 ‘완성형 보성’의 경우 민선 7기부터 유치한 대형 국책사업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보성군복합커뮤니티센터, 벌교문화복합센터, 보성읍 도시가스 공급, 경전선·남해선 전철화 사업 등 주요 사업이 가시화됐으며,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 3년 연속 1등급, 적극행정 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등으로 행정 신뢰도도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미래형 보성’을 통해서는 율포해양복합센터(총사업비 484억원, 2026년 완공)를 중심으로 남해안 해양레저관광 중심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현장형 보성’을 통해서는 백내장 수술비, 대상포진 예방접종, 임플란트·틀니 지원,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등 어르신 복지를 강화하고, 장애인·바우처 콜택시, 초중고 100원 버스 등 교통 약자 지원 등 생활형 행정으로 군민이 직접 체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

또 보성군은 소통600, 문화600, 민생600, 복지600, 의료600 등 ‘보성600’을 추진, 군수가 직접 문자로 군민들의 의견을 받고 48시간 내 회신하는 시스템부터 생애주기별 공공의료 정책까지 군민이 365일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민선 8기를 시작하며 제시했던 공약에서도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복지행정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기관, 제16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평가 우수기관 등의 평가를 받았으며 공모사업으로는 해도항 어촌신활력사업,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 사업 등 157건 2680억원 규모를 확보했다.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오봉산 구들장 힐링파크, 태백산맥 테마파크, ‘열선루’ 중건, 라온프라이빗 주거복합타운, 보성차정원 등이 추진 중이며 권역별로는 벌교읍권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주암호권 주월산 테마힐링파크·농어촌생활용수 개발, 득량만권 전남교육수련원 건립, 율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 지역맞춤형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지난 3년 군민과 함께 쉼 없이 달려오면서 군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정책,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을 통해 변화의 속도와 방향을 만들어왔다”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흔들림 없이 군민 곁을 지키고,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보성의 내일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성=양종수 기자

고흥군, ‘도양복합문화센터’ 준공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전라남도 고흥군이 최근 ‘도양복합문화센터’ 준공식을 개최하고 1일부터 일부 시설에 대한 운영에 돌입했다.

도양복합문화센터는 고흥군 남부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기반 확충을 위해 조성된 복합시설로, 지난 2년간 총 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시설은 1층 수영장, 2층 체력 단련실, 다목적 강의실, 3층 가족 단위 이용객을 위한 키즈카페 등을 갖췄다.

2층 체력 단련실과 다목적 강의실은 이날부터 개방되며 수영 강사와 안전요원 등 운영 인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회원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다. 3층에 위치한 키즈카페는 현재 위탁 운영자 공고 중으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개장할 예정이다.

도양복합문화센터에서는 체육·문화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으로, 군은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행정적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고흥=심정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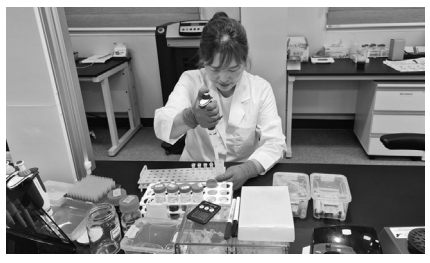
전국수영대회 개최로 임시 휴장
광양수영장, 9일부터 정상 운영

전라남도 광양시는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광양수영장에서 열리는 ‘제10회 광양만배 유소년 전국수영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일부터 8일까지 수영장을 임시 휴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유년부(초등 1~4학년), 초등부(초등 5~6학년), 중등부 등 총 512명(남자 초등부 171, 여자 초등부 172, 남자 중학부 104, 여자 중학부 65)의 선수가 출전해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광양시는 경영풀장 조명 보수, 샤워장 타일 교체, 화장실 위생 설비 개선 등 노후 시설물 정비를 통해 대회 참가자와 시설 이용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수영장은 오는 9일부터 정상 운영된다.

광양=안영준 기자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고흥군 농업기술센터

전라남도 고흥군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소비자의 지역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1일부터 고흥군 농업기술센터 내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안전분석실’은 과학영농시험연구동 내에 220㎡ 규모로 구축됐으며 기기분석실과 전처리실 등 최신 분석 환경을 갖추고 있다. 특히 기체질량분석기(GC-MS/MS), 액체질량분석기(LC-MS/MS) 등 48종의 고성능 장비를 도입해 총 463종의 잔류농약을 정밀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제도에 따르면 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하거나 비허용 농약이 0.01ppm 이상 검출된 농산물은 폐기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고흥군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농산물의 출하를 줄이고, 유통 전 단계에서 안전성을 점검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흥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은 모든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시료(1~3kg)를 고르게 채취한 후 신분증을 지참해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방문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분석 결과는 출하 전 농산물의 안전을 미리 확인하기 위한 참고용 검사로, 법적 효력을 지니지 않는다.

고흥=심정우 기자

지난달 28일 구례군 서시천 체육공원에서 진행된 ‘구석구석 문화배달’ 행사에서 경남 하동군 난정마을 주민들이 짚신공예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구례군 제공

구례군, 폭염에도 ‘구석구석 문화배달’ 호응

전라남도 구례군은 최근 매천도서관과 서시천 체육공원에서 ‘2025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매천도서관에서 열린 도서관 수요야행에서는 섬진강 시인으로 유명한 박남준 작가의 작품활동에 대한 이야기와 시 낭송으로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한 공유책방 ‘북덕방’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어 지난달 28일 진행된 섬진강 문화레저파크 역시 폭염에도 불구하고 가족 단위 참가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특히 경남 하동군 난정마을에서 구례를 찾은 어르신들이 선보인 짚신 만들기와 짚공예 체험은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뜻깊은 문화 교류의 자리가 됐다는 반응이다.

다음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은 이달과 8월 마지막 주 수요일, 매천도서관에서 그림책을 주제로 한 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례=김상현 기자

장흥 무산김, 전국 하나로마트 유통망 진출
관산농협·장흥무산김㈜ 업무협약

전라남도 장흥군의 대표 특산물인 친환경 무산김이 농협 하나로마트 유통망을 통해 전국 소비자들을 만난다.

1일 장흥군에 따르면 최근 장흥관산농협과 장흥무산김㈜간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 등 2200개소의 판매점에 무산김을 공급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김 산업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흥 무산김은 전국 최초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ASC-MSC 국제 유기인증을 획득한 친환경 김으로, 품질과 지속가능성을 모두 갖춘 차세대 수산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무산김 산업의 고도화, 전국화, 글로벌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협약은 장흥 무산김 산업의 새로운 도약이자 전국 농협 유통망 납품이라는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사례”라며 “무산김이 소비자들의 폭넓은 선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흥=김전환 기자

표고 품종 구분 기술 개발
장흥버섯산업연구원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이 자체 개발해 보급 중인 표고버섯 신품종 ‘흥화’의 유전자(DNA)를 이용한 판별기술을 개발했다.

1일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표고버섯은 형태적 특성이 비슷해 유통과정에서 품종을 구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며, 특히 종균 상태에서는 품종을 전혀 구별할 수 없다는 특성이 있었다.

이번에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서 개발한 기술은 DNA의 염기서열 차이를 비교해 단시간에 99.9%의 정확도로 흥화 신품종과 다른 품종을 판별할 수 있다.

흥화 신품종은 지난 2022년 개발돼 현재 장흥 21개 농가에서 8만4000본이 재배 중이며, 농가와 소비자의 반응이 좋아 꾸준히 재배량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개발된 품종 판별기술을 통해 국내에서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일본 품종의 표고와 섞여 유통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생산이력제도 가능해져 군민의 숙원인 장흥군만의 고유 품종 육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장흥=김전환 기자